

# '89 부산여름무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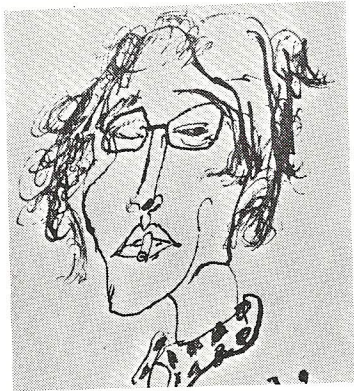
Pusan Summer Dance Festival '89



1989년 8월 6일(일) ~ 14일(일) 오후 7시 30분

- 주최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 주관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광안리방파제



## 바다 · 햇빛 · 무용

부산에서 여름무용축제를 벌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몇년전 부터 여름음악학교(야외·실내)가 생겼다. 설악산에 가서 그 여름음악학교 연주회를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여름 시인학교도 있다. 두어번 그 시인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이 난다. 미국에 갔었을 때는 보스톤 탕글우드 여름음악학교(야외)에 입학했던 기억도 새롭다. 여름무용학교는 선진국의 경우 늘 개강한다. 바젤에서, 리옹에서, 그밖의 뉴욕이나 다른 도시에서 그러나 짧은 여정 때문에 나는 여름무용학교 신입생은 되지 못했다.

부산은 내게 매력있는 향도로 미치곤 한다.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를 어깨 옆에 두고 달릴 수 있는 해안길이 있다. 南貞鎬의 고물차를 얻어타고 나는 아이처럼 바다를 바라본다. 얼마전에도 바다 도시에서 이틀을 묵고 왔다. 무용평론가회 세미나가 어떤 신문사 강당에서 열렸기 때문에.

부산여름무용학교는 7일부터 12일까지 속계된다. 실기·극장·공연·이론강의·VTR 감상·야외공연 등이 이어진다. 일본에서 무라카미 같은 댄서도 이 축제에 참여한다. 티라 타프 안무「수레바퀴밑의 카트린느」롤랑 쾨티의 안무 작품도 보고 싶다. 롤랑 쾨티는 70년대에 「핑크 푸로이트」로 나는 만났었다.

부산에는 춤추는 내 벗들도 많다. 南貞鎬·崔思姬·김은이·鄭貴仁·李榮熙·申貞姬·金福善·성은지·趙恒愛 등이 그리고 洪淳美·姜美姬·韓銀周같은 셋별도 활약한다.

겸사 겸사 이번 여름무용학교에 나는 가보려 한다. 피서 갈데도 없으니깐 한 3일 비행기를 타면 40분만에 내려 바다 구경을 하고, 파라다이스 카페나 가비방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싶다. 물론 여름무용학교에 입학한 늙은 신인으로.

미국서 공연하러 온 金榮順도 부산대에서 워크샵을 하는 모양이다. 이래저래 바다가 있는 향도는 분별 것 같다.

1989. 8.

무용평론가회장 김 영 태

8월 6일 앞놀음 - 춤패 배김새

## “열림굿 89”



- 서막 : 길 놀음굿 - 첫째마당 : 관 놀음굿, 첫째거리 - 神울림, 둘째거리 - 북 놀음굿  
- 둘째마당 : 춤 한마당  
- 셋째마당 : 모두 다 함께!

- 연출 : 최은희(경성대 무용학과 교수)
- 지도훈련 : 정미숙(배김새 대표)
- 안무·출연 : 윤보경·정미숙·안줄이·김희선  
서상순·이경미·하연화·신은주  
및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

열림굿 '89는 우리시대의 삶을 풍부하게 할 예술의 한 실천적인 場으로서 민족간의 화합·질서 그리고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적, 더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적 염원의 진취적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해본 춤판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명의 춤판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986. 8. 6 배김새 일동

8월 9일

정재만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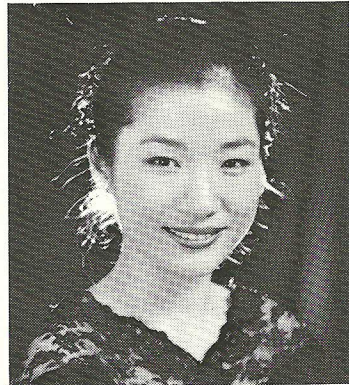
## “정중동(靜中動)의 대화”



◀ 정재만

- 숙명여대 교수
- 정재만 남무단장

- 안무·출연: 정재만
- 음악: 사물놀이



▲ 출연: 정은혜

-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여대 강사
- 서울예술단 연구원

■ 사물놀이에서 짝쇠는 두 개의 팽과리가 서로의 음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한다. 두 사람의 춤의 기량을 서로 대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일치를 춤으로써 묘사한 것임. ■



8월 9일

신정희의 춤

“달의 슬픔”



◀ 신 정 희

- 경성대학교 교수
- 발레블랑 회장

- 안무·출연 : 신정희
- 음악 : Erick Satie

■이 저녁, 달은 더없이 나른하게 꿈꾼다. 포개놓은 방석위에서 잠들기 전에 무심한 손길로 가벼웁게 젓가슴 언저리를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타고, 보드라운 눈, 사태치는 비단결 눈을 기대고 쓰러져 가듯 오랫동안 기절했다가 피는 꽃처럼 창공에 솟아 오르는 하얀 환영들을 둘러다 본다.■



▶ 주요작품

- 독백
- 3인을 위한 5중주
- 망각의 숲

8월 9일 클라라 무라카미 무용단

“먼소리(遠聲)”



▲ 클라라 무라카미

- 안무 : 클라라 무라카미
- 출연 : 클라라 무라카미 · Takemoto Kyoko · Katsuta Yoshiyuki · Endo Chiyoko · Kamogawa Sanshi
- 음악구성 : 市來邦比古
- 조명디자인 : 杉浦弘行
- 의상디자인 : 前田哲彦 · 鳥海恒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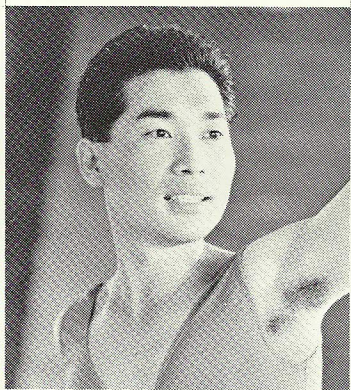
◆ 클라라 무라카미 ◆

- 1947년 生
- 이시이 바쿠 사사
- 이시이 가오르 사사
- H. 기타하라 : 발레사사
- 1966년 도쿄 모던댄스 연구소 Open
- 1981년 클라라 Dance Company 설립
- 이시이 가오르, 쇼오자 히로시, M. 와카카츠, 후쿠다 리시다, 시가 미요코, 호리따 가츠코 등 현대모던댄스계의 제일선 작가들과 만나 작품의 guest 참가, 그외 신극공연의 guest댄서 안무담당으로 참가, Opera, Musical, TV쇼, 어린이프로, Fashion Show 등의 안무를 하였음.
- 170여개의 작품 등
- 매년 여름 아사히 ABC 홀에서 연구발표회를 가짐.

8월 10일

춤패 어울림

## “어떤 무대에서”



◀ 장 래 훈  
(부산시립무용단 차석)

- 안무 : 장래훈
- 출연 : 이송희·홍기태·장항선·장휘지  
이현미·이현숙·김동숙
- 음악 : 김수철
- 의상 : 김성만

### 춤의 내용

■ 여기 저기 우리들의 흔적들이 살아있다.

부서져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다. 쓰러지는 자신의 생을  
지탱할 힘도없이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져 있고 누군가의  
눈에 의해 끝도없이 어설픈 몸짓을 지어야 하는가? ■

### 춤의 연혁

◆ 춤패 어울림은 1989년 6  
월에 첫모임을 갖고 부산시  
립무용단원으로 구성된 한  
국춤 연구 단체이다.◆



8월 10일 발레블랑 (Ballet Blanc)

“엘리베이션(Elevation)”



- 안무 : 공동안무
- 출연 : 강희정·강혜성·김영주·김옥련  
김지희·박지숙·안금조·이고은
- 음악 : 반젤리스(Vangelis)
- 의상 : 미투리

■ 바로 이곳에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 이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인간의 상승욕구·상승의지는 지금 우리들 스스로에게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하면서... ■

◆ 발레블랑 연혁 ◆

- 1980. 9. 발레블랑(Ballet Blanc)창단
- 1981. 6. 발레블랑 창단공연 (국립극장 소극장)
- 1982~89. 제2회~제8회 정기공연
- 1982.~87. 제4, 5, 6, 8, 10회 대한민국 무용제 참가
- 1988. 10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국제무용제 참가



8월 10일

# 한국 춤모임 짓

## “왜?”



◀ 김 화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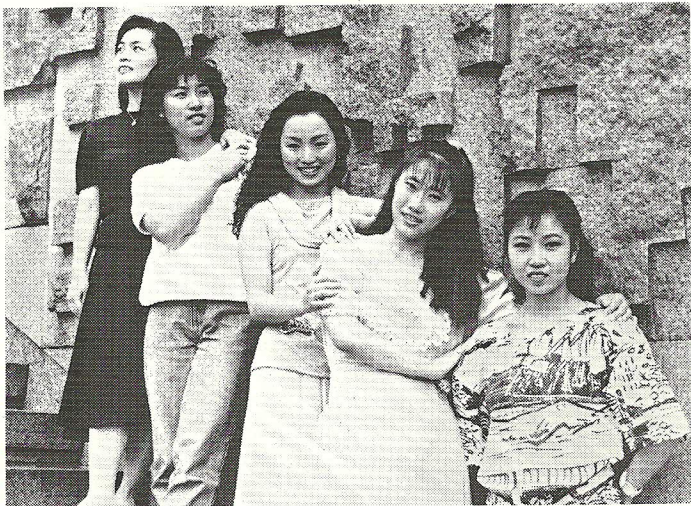
- 안무: 김화속
- 출연: 김화속·장해정·배미성  
김미경·배정현
- 음악: 김옥균(편집)
- 의상: 고려사
- 미술: 김종호

■ 순간 내가슴 한 귀퉁이 어딘가에서 “쿵” 소리와 함께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그 구멍속으로 들여다 보이는 칠흙의 암흑의 함정—천천히 눈을 뜬다. 한치의 여백도 없이 온 시야를 가득히 물들이며 쏟아져 내려오는 단색의 세계— 그 피빛 세상

왜일까?

어느새 눈자위에 까닭모를 눈물이 피잉 피어온다.■

—임철우 작 「붉은 방」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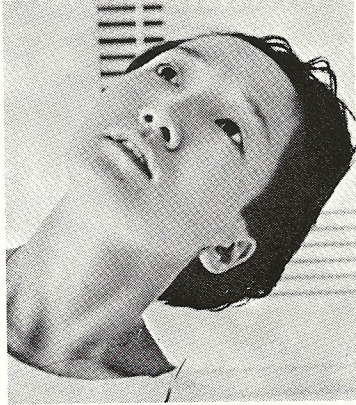


### ◆ 짓 연혁 ◆

- 1986. 9. 짓 창단
- 1987. 5. 짓 창립공연 “얼굴벗기”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 1987. 12. 제1회 지역간 연합무용  
제전 참가 (대구 동아문화센터)
- 1988. 11. 1988년 짓 출판  
(부산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1985. 5. 창작춤판  
(가마골 소극장)

8월 10일 현대무용단 주 - □

## “銅像들의 招魂”



◀ 김 현 속

- 안무 : 김현숙
- 출연 : 김현숙·김주순·강미희  
한은주·곽선영
- 음악 : Vivaldi, Ligeti

■ 큰 공원속 한 구석자리만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동상들의 혼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도아래 적막한 공간속에 들리는 어떤 소리에 동상들은 같은 길을 따라 혼을 깨는데서 작품은 시작된다.■



### ◆ 주 - □ 연혁 ◆

- 1988. 1. 창단
- 1988. 5. 창단공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1988. 7. 야외공연  
(광안리 해변가)
- 1989. 3. 제2회 정기공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1989. 6. 제8회 국제현대무용  
제전 참가 (호암 아트홀)

8월 10일

춤패 배김새

## “흔적(痕迹)”



### ◀ 안 줄 이

- 안무 : 안줄이
- 출연 : 정미숙·김희선·안줄이·이경미  
서상순·하연화·신은주
- 음악 : 오인종
- 의상 : 김성만
- 미술 : 전미정

### ■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모든것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몸이 마음처럼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흔들리고 부서져 산산히 흩어진다해도 내 영혼을 발산하는 하나의 영이 되어 영원히 죽지않는 불멸의 소리로 잊혀지지 않은 흔적이 되고 싶다.  
<지금 이자리 누락(漏落)되어가는 생명이 있다.> ■



### ◆ 배김새 연혁 ◆

- 1985. 7. 배김새 창단
- 1986. 12. 배김새 창단공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마골 소극장)
- 1987. 3. 서울 창무 춤터 초청 공연
- 1988. 2~12. 기획시리즈  
“전통무용과의 만남” 기획공연
- 1989. 7. 기획시리즈 “만남”  
(가마골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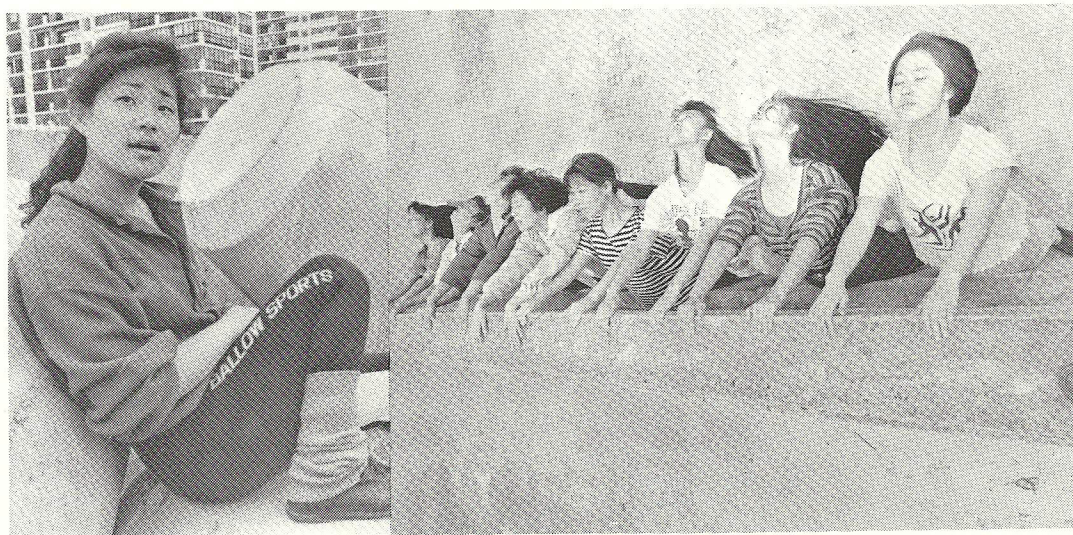
8월 13,14일 뒤편이-현대무용단주-□

## “여름 땀 식히기”

■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초저녁의 붉그스름한 달빛을 조명삼아 여름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9명의 무용수가 야외로 뛰쳐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 다 못뺀어 아직도 남아있는 열기가 올 여름에도 우리를 흥분시켜 또 한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야외공연 “여름땀 식히기”는 우리의 민속무용인 “농악”의 구성을 바탕으로 깃발행렬—군무—3인무—독무—4인무—군무—깃발행렬로 펼쳐 보일 것입니다.■

- 안무 : 김광순
- 출연 : 김주순·김광순·곽선영·한은주  
이민영·김순화·김미애·허윤정
- 미술 : 이미선
- 사진 : 한종경



이 공연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기금을 보조 받았습니다.